

學術情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大學出版部

이 영 자*

〈목 차〉

- | | |
|---------------------------------|--|
| I. 서 론 | 者) |
| 1. 연구의 목적 | 3.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대학출판서적 |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 4.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수신자로서의 학자 및 교수(敎授) |
| II. 대학출판부의 출현과 정의(定義) | IV.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의 문제점 |
| 1. 대학출판부의 출현과 발전 | V.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 2. 대학출판부의 정의(定義)와 책임 | VI. 결 론 |
| III.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 | |
| 1.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의의(意義) | |
| 2.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정보원(情報源)으로서의 저자(著 | |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학술연구의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학문을 진작시키는 전체 과정중의 한부분이며,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결과가 동료의 심사 및 평가를 받고, 가능한한 다른 많은 학자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욕구와 동시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소수의 독자들 밖에 확보할 수 없는, 고도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조교수

2 도서관한논집

학술성 내지 전문성을 띤 도서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일반 출판사의 출판 대상이 되기 힘들며, 학문의 진작과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는 대학이 그 출판부를 통하여 학술서적 존속의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출판부는 그 사명수행에 있어서 현대사회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문제, 정보의 양적 팽창문제, 새로운 기술발달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 하겠다. 즉 학술서적의 판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는 판매 단가(單價)의 앙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다가, 연구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은 서적단가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우기 많은 대학에서 대학출판부의 출판물로서 교수의 승진과 재직기간의 평가기준의 중요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서 필연적으로 학술연구 결과의 출판량을 압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내용의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어야 할 때, 독창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큰 작품들의 출판기회는 그만큼 약화되지 않을 수 없으며 '출판이나, 멸망이나?'(Publish or Perish?)의 필사적인 여건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발달의 촉진은 전통적인 출판서적이 컴퓨터에 의한 전자식(electronic) 축적과 검색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까지 출현(出現)시키고 있어,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발명한 가장 놀랍고 훌륭한 창조물로서의 학술도서의 미래는, 현재의 상황을 정시(正視)하고 그 의의(意義)를 재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서적의 주(主)된 생산자로서의 대학출판부의 정체를,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시스템적 측면에서 분석, 파악하고 현재 그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하여, 이 주제에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답습하였고 특히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

국의 「國家研究팀」(The National Enquiry)의 연구결과 보고서⁽¹⁾와 한국의 대학출판협의 사항⁽²⁾을 주로 참고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을 위한 계획의 일환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이를 위한 한국의 대학출판부 실태조사는 그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컸기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 주제에 관한 외국,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대학출판부의 발전을 설명하는 절(節)에서 언급된 문헌으로 대신할 수 있고, 국내의 경우, 이 주제에 관련된 단편적인 기사와 협회의 협의사항이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II. 대학출판부의 출현과 정의(定義)

1. 대학출판부의 출현과 발전

‘대학출판부의 역사는 서양에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지 불과 20여년 뒤에 영국에 활자인쇄기술이 도입됨과 동시에 비롯된다. 1478년에 영국의 옥스퍼드(Oxford)대학 출판부에서는 유명한 「성제롬의 사도신조」라는 책을 출판했을 뿐만아니라 대학출판부를 「University Press」라고 하게 된 것도 실은 옥스퍼드 제 2인쇄소에서 유래한 말이다. 1521년에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출판부가 설치되었으며 1551년에 최초의 케임브리지판 성서를 출판했다.

그러나 대학출판부가 현대와 같이 확고한 기틀을 잡게된 것은 1640년 미국의 하아바드(Harvard)대학에 출판부가 마련되고서도 200년이 더 지난 1878년, 존·홉킨스(John Hopkins)대학 출판부가 설치된 이후라고 할 수 있겠다.”⁽³⁾ 즉, 이 시기부터 거의 80여년에 걸쳐 대학출판부에 마련된 용어의 정

(1)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Scholarly Communication: The Report of the National Enquiry*,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2) 대학출판협회장, “한국대학 출판협회 활동현황 및 건의서 : 서울 : 대학출판협회(1980. April), pp. 1-15.

(3) 安安齋, 根現代出版學演習, 서울 : 景仁文化社, 1975, p. 149.

4 도서관학논점

의(定義), 예를들면 학술자료출판(Scholarly Publishing)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대학출판부의 역할이나 기능 혹은, 책임이나 임무를 규명하는 문헌이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다가 1949년 Chester Kerr가 대학출판의 고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⁴⁾ 발간함으로써 대학 출판계는 1949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논해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1949년 이후는 대학출판부의 갑작스러운 수적 증가(1948년에 AAUP의 회원이 35개)⁽⁵⁾와 출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분련의 생산(1960년에 AAUP가 출판한 Richard G. Underwood의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Problems of American University Presses*를 위시하여 역시 AAUP가 1967년에 발간한, Gene R. Hawes가 쓴 대학출판에 대한 편람적인 *To Advance Knowledge*, 그리고 토론토(Toronto)대학 출판부가 1961년 그 창간을 시작하여 출판자들 과학자들 간의 의견교환의 필수불가결한 공개토론 장소가 된 잡지 *Scholarly Publishing*의 출판 등...)⁽⁶⁾과 1949년에 공식적으로 발족된 미국출판협회(AAUP: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es)⁽⁷⁾의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서 대학출판사회의 성숙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의 창립, 5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존·홉킨즈대학 출판부의 100주년기념해로서 이 두 대학 출판부를 포함하여 AAPU의 회원이 74개에 이르렀고 중요 사무실을 다른 여러 나라에 설치하고 있다.⁽⁸⁾ (Cambridge, Oxford, Edinburgh, British Columbia, McGill-Queens, Laval, Montreal, Toronto, Tokyo, Universitetsforlaget)

(4) Kerr, Chester, *A Report on American University Presses based on a Survey Sponsored by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with grant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New York: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 1949.

(5) Gardner, Richard K., *Library Collection: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p. 64.

(6)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Chapter 3. Scholarly Books and Presses" in *Scholarly Communication: The Report of the National Enquiry*.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p. 82.

(7) Ibid, p. 102.

(8) Ibid, p. 83.

1977년에 AAUP는 미국의 전체 출판산업인 42,780 타이틀 중에 3,999타이틀 (약 10%)—이 가운데는 이전에 클로오드장정(裝幀)을 한 (clothbound) 도서였던 것을 종이포지(paperback)로 재판한 것 까지 포함되었음—을 출판하기에 이르렀고⁽⁹⁾ 하아바드, 예일(Yale), 시카고(Chicago), 캘리포니아(California)등 대규모의 미국 대학출판부는 매년 100권정도의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¹⁰⁾

또한 AAUP는, 대학출판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주관하여 오고있다.

- 1) 출판업무의 질적 수준의 기준설정을 도운다.
- 2) 출판활동에 관한 연구를 이용한다.
- 3) 공동도서전시회를 개최, 운영한다.
- 4) 교우명감(敎育名鑑) 우송리스트를 개발한다.
- 5) 출판업무 통계를 편집한다.
- 6) 연차회의를 통하여 회원끼리의 정보 및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교환을 촉진한다.⁽¹¹⁾

우리나라 대학에 처음으로 출판부가 설치된 것은 1959년 고려대학에서였으며⁽¹²⁾ 서울대학교의 출판부는 1962년에 창설되었으나 그 본격적인 활동은 1975년, 출판부의 기구개편으로 비롯된다.⁽¹³⁾ 「한국대학출판협회」는 1971년 4월 16일, 연세대학교 회의실에서 12개 대학출판부장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198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 협회의 회원수는 33교로 늘어났다.⁽¹⁴⁾ (강원대학 교출판부, 이하 「대학교출판부」를 생략함 건국, 경기, 경북, 경희, 계명, 고려, 국민, 단국, 동국, 동아, 덕성여대, 명지, 서강, 서울, 성균관, 성신여대, 세종대학, 숙명여대, 연세, 영남, 원광, 이화여대,

(9) Ibid.

(10) Gardner, Richard K. 前掲書, p.64.

(11)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es, 前掲書 p.102.

(12) 경북대학교, 경대신문, 1981, 11월 24일, 2면.

(13) 한국대학출판협회, 유인물, 제9차 정기총회 및 제9회 대학출판 세미나, (1979. 4. 27—29), 설악산 뉴설악 호텔, p.6.

(14) _____, "활동현황 및 견의서" 제10차 정기총회 및 제10회 대학출판세미나, (1980. 4. 25—27), 대구 pp.2—3.

6 도서관한본집

인하, 전남, 전북, 조선, 중앙, 한국외대, 한양, 홍익, 성심여사대 학보사)
충전대학교 학보사)

1981년의 **종합도서목록**⁽¹⁵⁾에는 25개의 대학출판부(80년, 회원이 아닌 출판부로는 항공대학이 새로이 포함되었음)가 출판한 891타이틀을 수록하고 있으며 상당한 重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100타이틀이상을 출판한 대학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 모두 교재용 도서가 상당수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대학출판협회의 주요 사업내역에는

1) 매년 1회씩의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2) 세계대학출판연합회(IASP) 가입, <현재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의 4개교>, 3) 종합도서목록, 발간, (80년 현재 제3집 발간 예정), 4) 연합광고를 통한 홍보 및 판매촉진(1979년, 9월에 제1회 연합광고를 참가교 각대학 신문에 게재하였음), 5) 각종 도서전시회 참가(79년에는 12개교가 참가), 6) 협회보 발간 : (80년도 하반기부터 각 대학출판부 신간 안내를 겸한 협회보(季刊)를 발간할 계획이므로 아직 계획에 머물러 있음)⁽¹⁶⁾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수행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라 할 수 있겠다.

2. 대학출판부의 정의(定義)와 책임

존·홉킨즈대학 출판부장인 J. G. Goellner⁽¹⁷⁾에 의하면 “대학출판부는 크게 눈에 띄는 조직도 아니고, 출판계에서도 분명한 이해를 받고 있지도 못하며, 모체기관(母大學)의 한 통합부서로서, 조직상으로 .. 특정 학교나 교수직에게 보다는 행정당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괴력했고, 계속해서 대학 출판부의 기능이 아카데미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약간의 대학출판부들은 별도로 설립된 법인단체이며,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전적으로 모대학(母大學) 창조물이지 않다. 대학출판부란 그 소속대학의 도서 혹은 잡지의 출판기관의 의고 그 간기(刊記 : imprint)는 그 대학의 출판인가(出版認可)로서 교수진

(15) 장하린, 1981년 **중로서적 출판총목록**. 서울. 중로서적 주식회사 1980. pp.973-999.

(16) 한국대학출판협회, “활동 현황 및 건의서”, p.5.

(17) Goellner, J. G., “The Future of University Presses,” *Library Journal*. September 15, 1978. p.1695.

운데에서나, 간혹 대학의부인사중에서 임명된 편집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간기(刊記)를 조정한다. 즉 특정 도서를 출판하기 이전에 그 편집위원회가 신청도서의 출판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출판부는 두개의 판이한 세계——대학, 다시말하여 고등교육 사회라는 하나의 세계와 도서출판산업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¹⁸⁾고 계속하여 피력하였다.

다니엘·길먼(Daniel Gilman: 1831—1908)이 대학의 세가지 최고의 기능을 ‘가르치는 것, 연구하는 것, 출판하는 것,⁽¹⁹⁾으로 명명(命名)했을 때, 대학 출판부의 존재이유는 이미 확고하여진 것이며, 특히 매일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다 멀리, 보다 널리, 그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의 하나라면 대학 출판부의 지상의 목적 또한 한마디로 지식의 향상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의 향상은 한번의 도약이나, 갑작스런 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의 출판에 의한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에 있어서의 대학출판부의 목적이 그 무엇보다도 지식과 학문의 보급과 향상에 있다는 것을 自明하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The National Enquiry 가 대학출판부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얻을수 있다. 이 조사는 25개의 공립대학과 18개의 사립대학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는데 그 현황은 다음 <表 1과>⁽²⁰⁾ 같다.

결국 19개의 공립대학과 15개의 사립대학교에서 대학출판부의 행정가들은 대학출판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학술정보, 즉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학출판부의 이와 같은 목적은 다시 그 역할과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학술도서가 반드시 대학출판에서만 생산되는것

(18) Goellner, J.G, 前掲論文, pp.1695—1696.

(19) Ibid. p.1696.

(20) Corson, John J., "How University Administrators Viewon University Presses?," *Scholarly Publishing*, January, 1978, p.2.

〈표 1〉 대학출판부의 목적

suggested purpose		greatest importance	moderate importance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① to enhance the prestige of the university	public ¹	12	9	4	—
	private	5	6	3	1
② to provide a needed service for faculty members, e.g., book publishing	public	6	10	5	2
	private	5	8	4	—
③ to provide services needed by the university	public	3	2	8	7
	private	1	2	1	7
④ to serve the scholarly community at large	public	19	4	—	1
	private	15	3	—	—
⑤ to produce works of value to state and to the general public	public	12	11	—	1
	private	2	8	1	3
⑥ to provide a financial return for the university	public	—	—	—	17
	private	—	—	—	10
⑦ to contribute to the public relations of the university	public	2	9	9	3
	private	—	5	4	3

은 아니지만, 대학출판부의 첫째로 중요한 책임이 주주(株主)에 대해서가 아니고 학문에 대해서이고 보면, 또 상업주의로 일관하려는 민간 출판사와는 달리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방편으로서의 출판이기 때문에, 출판할 도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일과, 품위를 유지하는 일에 특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책임을 구분해 본다면, 대학출판부는 크게 1) 모대학(母大學)학에 대한 책임과, 2) 학문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

다. 모대학(母大學)에 대하여 대학출판부는 최량(最良)의 서적을 출판하여 대학당국이 가능한 한한 적은 비용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적인 시장판로를 계획해야 하는 책임과 모대학의 특이한 강점을 반영하여 학교의 명성을 높이며 노력해야 할 의무(예를 들면 MIT출판부는 공학 및 기술 및 건축분야의 평판을 높이고 있음)⁽²¹⁾가 있다 하겠다.

둘째로, 비단 모대학에 국한하지 말고 학문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 또한 중요한 것인데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의 인식확대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대학출판부는 고도의 학술성 및 전문성을 띤 지식의 커뮤니케이션과정의 중요시스템들중의 하나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증대라는 과제에 항상 연루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Ⅲ.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 출판부

1.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의 의의(意義)

(1)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동향

비키리(Vickery)는⁽²²⁾ 커뮤니케이션의 단위활동을 「정보원(Source)—통로 혹은 매체 : (Channel)—수신자(Recipient)」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순수결과는 수신자가 정보원으로 부터 메시지(message)를 수신하는 일방적인 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활동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보원속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가, 수신자가 정보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 정보가 방출되어 수신자에게도 달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적절한 통로나 매체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활동은 반드시 사회적 관계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단위활동은 다시 사회적 요소로서의 정보원—사회적 요소로서의 매체—

(21) Goellner, J.G., 前掲論文, p.1698—1699.

(22) Vickery, B.C., "An Approach to Information Science," in *Theory and Application of Information Research*, ed. by Ole Harbo and Leif Kajberg, London: 1980, pp.1—2.

사회적 요소로서의 수신자]로 표현될 수 있다.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는 이 세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 효율에 관련할 수 있으며, 저자로서의 학자가 정보원이 되고, 대학출판부가 출판하는 도서들이 통로나 매체가 되며, 연구자나 교수(教授)로서의 학자가 수신자가 될 뿐더러 크게는 연구도서관도 수신자의 일역(一役)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학문간의 관련성의 증대, 및 학문의 전문화의 심화로 인하여, 학술정보의 양적 증대와 정보요구의 다양화가 초래되고,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시(適時)에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1960년에 멘젤(Mengel)이 초기의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이 분야의 일반적 연구 유형을 1) 과학정보 교환매체의 운영, 범위 및 가격 연구, 2) 분류방법, 탐색 및 검색시스템과 언어연구, 3) 과학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연구, 로 구분해 보았는데, (23) ‘첨차 이 분야의 연구경향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종 매체의 상호관련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로 그 방향을 끌여가고 있다. (24) 각종 매체의 상호관계에서 고려되고 있는 점은 ‘각종 매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각종 매체의 기능을 규명하고 보다 적절한 정보의 배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연구하고 여러가지 특별봉사와, 매체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절차를 적용시키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 (25)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제적인 자금지원, 가격정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뿐더러 과학커뮤니케이션 봉사의 효과적인 관리나 요건들을 규명해 줄 수 있다. 즉, 예를들어, 여러 연구결과로 부

(23) Compton, B. E., 孟仲鎬譯, “科學커뮤니케이션(上)”, 정보관리연구, Vol. 9, No. 6, (1976, p. 154.

(24) Compton, B. E., 孟仲鎬譯, “科學커뮤니케이션(中)”, 정보관리연구, Vol. 10, No. 2, (1977, April), p. 32.

(25) Ibid.

더 종합해서 추출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요건들은 다음 7가지로 집약이 되며, 이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개선이나 개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학문분야에 적합한, 7가지의 효과적인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요건들이란,

1) 정보의 소재과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지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2) 질(質)적 기준에 근거한 원고의 출판 출구의 공정성, 3) 학술정보 수준의 우열(優劣)을 가릴 수 있는 질적 통제(quality control)제도의 확립, 4) 원고의 수락이나 거절의 신속한 절차에 따른 적시(適時)의 출판과, 출판예정서에 대한 공지제도(公知制度)의 확립, 5) 학자, 출판자, 기술자, 학회, 정부, 재단, 도서관등이 그들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추구를 위하여 전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원활한 참여와 조정을 유지하는 일, 6) 사회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학계의 민감한 반응과 적응적 태도 유지에의 노력, 7)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확보⁽²⁶⁾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가 이상과 같은 연구 동향에 따라 그 각 요소들의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 제도의 도입이란 측면에서 연구되어야함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2)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의 의의(意意)

학술[學術]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인문, 사회의 전과학분야에 미치며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으로부터 기술에 이른다. 이와같은 의미로서 「학술」을 해석하게 되면 학술연구의 임무는 「인식(認識), 효용(效用), 비판(批判)」능력의 진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²⁷⁾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학술연구의 극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6) The John Hopkins University, 前掲書, p. 7.

(27) 北川敏男, “學術情報處理システムへの情報科學的接近”, in 情報科學の將來, 北川敏男編,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1977, p. 3.

지금까지 도서관이나 개인 서재에서 학자들이 집필한 작품들을 동료들의 십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원고들이 출판되면, 도서관들을 수집, 정리하고 다른 학자들이 도서관에서 그 작품들을 활용할수 있는 일련의 순환적인 유통 과정이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 자체로써 계속적인 갱신작용을 이르기면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을 풍요롭게 하여 왔다. (28)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은 학술연구의 결실에 가장 중요한 인풋(Input)으로써, 이 커뮤니케이션의 본 실체인 지식은, 그 사용에 따라 양의 감소가 일어나는 대신 그 양을 더욱 증대시키는 공익적(public good)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 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한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폭발적인 학술정보 생산량의 증대는 과거의 학술정보 유통의 공생적(共生的)인 순환을 파괴하고, 기계에 의한 정보의 축적, 검색, 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학술연구의 극대화와 최적화라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의의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속에서 어디까지나 인간과 기계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학술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정보원(Source)으로서의 저자(著者)

—대학출판서적의 저자로서의 학자, 혹은 교수—

대개의 지적 분야에 있어서 학술연구의 가치는 그 연구가 추출해 낸 결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작품을 읽고, 또 그 저자는 다른 저자의 작품을 읽게되는, 소위 정진적 교섭, 대화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새로운 발전이

(28) Fruge, August, "Beyond Publishing: A System of Scholarly Writing and Reading(I)." *Scholarly Publishing*, (1978, July), p.292.

나, 새로운 통찰, 기존 해석들의 수정이란, 타인의 사상(思想)위에서 고심하다가 우연히 얻게되는 발상이기 쉬우며, 미리 짜여지고 계획되기 보다는 직관에 의한 영감의 번뜩임을 통하여 창조적 정신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²⁹⁾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정보원으로서의 저자는 수신자로서의 독자 못지 않게 타인의 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원으로서의 저자들의 학술정보생산활동은 다섯번의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³⁰⁾ 첫번째 단계로는 지식생산의 기초단계가 있으며, 이는 박사학위청구를 위한 연구논문작성단계와 세미나 발표강의를 위한 준비자료의 배포가 포함되는 이른바 출판전(前)정보의 생성단계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이론이나 방법이 탄생하고 망각되는 싸움터라고도 할 수 있는 전문잡지에 지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단계이다. 복사기계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전자료의 확대가 용이해짐에 따라 학술잡지는 보다 명확하게 완성된 학자들의 업적을 기록, 보존하는 매체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겠다. 세번째는, 단행본(scholarly monograph)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잡지에 게재하기에는 너무 길고, 서적으로 출판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이외의 독자들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기술(技術)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단계이다. 즉 이미 잡지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묶어 재편집하거나, 연구보조자료나, 교재, 학생용 번역판으로 이 단계의 지식 생산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는, 단행본과는 명료한 구분을 짓기 어렵긴 하지만, 단행본보다 더 길고, 덜 기술적이라 할 수 있는 학술서적을 출판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모든 시대와 학파와 학문의 업적과 결과를 종합하여 재편성하는 참고서적의 출판 단계이다.

이상의 다섯 단계를 통하여 각각 학술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원으로서의 학자들은 그들의 작품을 인쇄하여 출판하는 과정에 흔히 좌절을 겪으며, 또한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한다고 할 수 있다. 학술서적의 특성과, 출판을 바라는

(29) Frugé, August, 前掲論文, p. 293.

(30) Funk, Robert W., "Issues in Scholarly Publishing" *Scholarly Publishing*. (1977, October), pp. 5-7.

원고의 범람은, 학자들로 하여금 출판물구의 발견에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학자의 원고 한편을 평균 4개, 혹은 5개의 출판사에 제출하더라도, 3명의 학자중에 겨우 한명의 원고만이 한 출판사에서는 출판되는⁽³¹⁾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학술연구를 하는 저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nquiry가 행한 조사에 응답한 저자들의 10%에 해당하는 학자들의 원고는 평균 10개의 출판사에 제출된 후에도 출판이 되지 못한채 영구히 책선반에 남아있다고⁽³²⁾ 한다.

정보원으로서의 저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와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출판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투·웨이·시스템(two-way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나중에 상세히 논하게 될 것이다.

3. 학술정보 용기(容器) 혹은 매체(媒體)로서의 대학 출판서적.

학술서적이란 주로 비영리기관, 즉 학회나 박물관이나, 연구소나, 가장 많은 대학출판부에서 간행되는 서적을 일컬으며 따라서 대학출판서적으로 불리워질 수도 있다. 최소 한도로 한번의 인쇄부수가 15,000부타야 하는 민간상업출판사가, 5년에 걸쳐 평균 1,300부가 팔리는 비소설류의 학술서적의 출판을 거부하는 것은⁽³³⁾ 당연한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Chester Kerr의 “우리는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의 부수의 책을 출판한다. 그리고 최고의 정가(定價)를 책정하여 최저의 구매력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한다.”⁽³⁴⁾ 라는 말은 학술서적의 특성을 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학회위원회(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도서출판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보고서에서

(31)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 93.

(32) Ibid.

(33) Gasdner, Richard K., 前掲書, p. 63.

(34) Hawes, Gene R., *To Advance Knowledge: A Handbook on University Press Publishing*. New York: American University Press Services, Inc., 1967, p. 50.

밝힌 학술도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³⁵⁾

첫째, 해독하기 어려운 류(“esoteric”)類의 저작, 즉 학문적 가치가 높지만 판로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전문서적, 및 학술연구저서들이 이에 속하여, 그 질적 내용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출판의 기회를 얻기 힘들며 보조금, 등의 자금 투자조차도 출판부 측에서 일종의 모험으로 각오해야 하는 성격의 저작이다. 둘째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 체계가 있지만, 잡지에 실기에는 너무 길고 서적으로 출판하기에는 너무 짧은 원고가 포함된다. 셋째는, 古考學이나 美術史등의 삽화나, 목판 혹은 금속판(plates), 음악이나 언어학 분야의 특수 부호 등과 같이 식자(植字)와 재생(再生)이 어렵고 값이 비싼, 특수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원고이다. 네번째는 지식세계에 이렇다할 독창적인 공헌은 거의 가져오지 않지만 그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학술도구로서의 원고이고, 다섯번째는, 대학출판부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원고, 등이 포함된다.

이 모두는 대학출판부가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이념아래 세상에 발표하지 않으면 좀처럼 민간장업출판사에서 선택하려들지 않는 성격의 원고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술서적은 고도의 편집기술과 디자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신속한 출판을 위하여 출판의 질을 희생하지 않으며 대개 민간출판사보다 미학적(美學的)으로 훨씬 아름다운 외형과, 높은 질의 내용을 갖추어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³⁶⁾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학술서적은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가능한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기능이 저해당하고 있다 하겠다. 자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대학출판부는 고도의 학술성을 가지고 있는 학술서적을 출판하기 위하여서는 외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 역

(35) Welter, Rush, *Problems of Scholarly Publication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 Report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Scholarly Publication of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New York: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59, pp.66-67.

(36) Gardner, Richard K., 前掲書 p.65.

활과 책임 수행이 어려워 지게 되어 경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점차 참고 도서나 교재류의 편찬에로 진입하기까지에 이르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생산의 양적 위기에 봉착한 현대 출판계는 새로 개발된 각종 기술들을 적용, 도입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그 결과로 마이크로·폴이나, 테이프, 디스크, 등의 정보기록매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매체는 어디까지나 사용(use)되어지는 매체라 한다면 저적은 읽혀지는(read) 매체로서, 그 속에 인간적 정신이나 혹은 사람이 깃들여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독과 정열속에 쓰여졌고, 고독속에서 읽혀지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도서는 흔히 저자가 없이 편집된 사실(事實)들의 목록이나 데이터나 서지사항을 디스크나 테이프에 기록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즉 정보를 「사용가능하게 하는」(available) 것과 원고를 출판하는(publish)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³⁷⁾ 하겠다.

흔히 “종이없는 사회(paperless society)”의 도래라는 예고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불량서적이 양서(良書)를 몰아내고 있는 일종의 그레샴(Greshams)의 인쇄법칙 현상을 현대에서 엿볼 수 있지만, 학문의 진작과 대학교육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대학출판서적은 여전히 경제적 불황의 위기를 여러 대안으로 타개해 나가면서 아름답고 질 높은 학술서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학술서적은 출판기간의 지연이나, 비싼 가격, 극히 제한된 시장판로 등의 여러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놀라운 창조물⁽³⁹⁾’로써 언제나 젊고 신선하게 인간의 내면적 정신의 얘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1968년에서 1974년까지 학문 분야별로, 미국 대학에서 출판된 학술서적의 숫자는 (표 2와)⁽⁴⁰⁾ 같다.

(37) Bailey, Jr. Herbert S., "The Traditional Book in the Electronic Age, Fifth Of the R. R. Bowker Memorial Lecture", *New Series*. (1977, November 10), New York: Bowker, 1978, p. 21.

(39) *Ibid.* p. 15.

(40)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 88

〈표 2〉 Publication of Scholarly Books by Universities, by Discipline, for Selected Years, 1968-74

Year	Number of titles	Percentage by discipline			
		Humanities	Social sciences	Sciences	Other
1968	3,096	39	31	9	21
1969	3,253	39	31	10	20
1971	3,448	38	34	8	20
1973	3,343	36	33	10	21
1974	4,103	34	40	8	18

Source: Library of Congress data, cited by Robert S. Hohwald, "University Publications in Various Fields," a report for the National Enquiry. Note that the data are for all university sources. University presses account for nearly two-thirds of the titles; university institutes, research libranes, and departments account for the rest.

4.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로서의 학자 혹은 교수(教授)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원(情報源)으로서의 학자들이 다른 학자들의 작품에 크게 의존하는 정보수신자로서의 독자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신자로서의 학자 또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원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기존 지식구조를 보완·확대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전체작업을 위하여 다른 학자의 연구결과로서의 학술 서적을 구매하거나 읽어야 할 때, 그들은 일단 정보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 정보수신자로서의 학자들의 정보수신 형태에 대한 데이터는 정보원으로서의 학자들의 정보생산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출판된 정보의 질과 내용은 수신자들의 정보획득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의 (표 3)는⁽⁴¹⁾ 정보 수신자로서의 학자들의 정보수신 행태의 일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응답자가 42%, 더 적게 읽는다는 학자들이 21%, 거의 같은 양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37%이다.

(41)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90.

〈표 3〉 Profile of Scholarly Book Readers (Percentage of respondents)

	Percentage reporting		
	More	Fewer	Same
A. Change in book-using habits in recent years			
Books read	42	21	37
Books bought	27	35	38
Books borrowed	34	17	49
B. Source of information on latest book bought ^a			
Publisher's announcement or catalog	34		
Advertisement in scholarly journal	20		
Book review	18		
Colleague recommendation	15		
Citation in article or book	12		
Browsing in bookstore	11		
Browsing in library	4		
Publisher's booth at convention	6		
C. Ways of purchasing, ranked in importance			
Order from publisher	45		
Buy from bookstore shelf	27		
Order from bookseller	18		
Other	10		

Source: National Enquiry Survey of Scholars.

^aPercentages add up to over 100 because multiple answers were permitted.

이에 반하여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사본다는 응답자가 27%이고, 더 적게 사는 학자들이 35%이며, 더 많이 빌려 본다는 응답자가 34%, 더 적게 빌려 본다는 학자들이 17%로서, 책은 더 많이 읽되 구매는 더 적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학술서적의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출판사의 광고와 목록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학술잡지의 광고와 북, 리뷰를 그 다음으로 이용하고, 동료의 추천이 그 다음 이용되는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술서적의 구입방법을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는 경우가 45%으로 가장 높

고, 저절에서의 구입 서적상을 통한 주문의 순서로 나가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중에 9명은 1년에 적어도 50권의 책을 읽으며, 약 15권의 서적을 구매하고 있어, 잡지 구독을 위하여 할애하는 요금보다 두 배에 해당하는 \$150을 서적 구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대부분의 학자들의 개인, 장서량은 평균 600권에서 2,000권 사이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간도서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나 새로운 자료에의 접근능력, 그리고 그들이 구매하는 서적의 질이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장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학자들은 최신서적을 크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읽는 반가량의 서적이 1년 혹은 1년반 전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에서 대출해 오는(29%) 것보다는 최근의 신간서적을 직접구입하여 (38%), 개인 장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⁴⁴⁾

학술정보 수신자로서의 학자들이 학술서적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도서의 가격 인상과, 대학도서관의 장서의 부족 및 부적당함과, 출판도서에 대한 서지 및 참고안내자료의 부족 등이다.⁽⁴⁵⁾

이상의 <정보원-과정보전탈 매체와 -수신자>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요소들은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 대학출판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하고 있어, 항상 전체적인 과정중의 한 부분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의 문제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3가지 요소들의 분석에 의한 대학출판부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재정적 문제이며 둘째는

(42) Ibid, p. 89.

(43) Ibid, p. 89.

(43) Ibid, p. 91.

(44) Ibid, p. 90.

(45) Ibid, p. 91.

출판량의 폭발, 세번째는 새로운 기술발명과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첫째의 재정적 문제는 존·홉킨즈 대학출판부장인 Goellner 씨가 대학출판부의 단 하나의 최대의 문제⁽⁴⁶⁾로 지적하고 있는, 대학출판부의 숙명적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내용이 훌륭한 학술서적이거나 전문서적, 그리고 가장 수명이 긴 학술서적의 시장판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자체 운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출판자금의 출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항상 불확실한 점이며,⁽⁴⁷⁾ 둘째 사회적인 여러 복합요인이 학술서적의 단가(單價)를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시키고 있는 점이며, 셋째, 학술서적의 가장 유망한 유통채널인 도서관의 예산이 도서의 가격 인상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며⁽⁴⁸⁾, 대학자체내의 경제적 긴축이 중첩됨으로 하여 출판부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점⁽⁴⁹⁾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헐적인, 소규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포드(Ford)재단처럼, 일관성있고 계속적인 간행조성비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출판부나, 개개인의 연구를 후원하고 있는 재단이 없는 점이⁽⁵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간행조성비지급이 활발히 투여되지 않으면, 전문가 및 연구가에게 출판을 목표로 집필하는 의욕을 붙여 넣어줄 수 없게 되고, 보다 진지하고 계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써 자연히 학문의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다가 도서관의 불실이 심하며 문교당국의 구속력도 없고, 전통있는 몇몇

(46) Goellner, J.G., 前掲書, p.1699.

(47) Ibid.

(48)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4.

(49) Goellner, J.G., 前掲書, 同面.

(50) 한국대학출판협회, 유인물(1979. 4. 27-29), p.4

※ Ford 재단의 간행조성비 계획은 1956년 이래 실시되었으며 대학출판부 또는 개개인의 연구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총계 272만5천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35개 대학출판부에 지급되어 책상상 간행이 가장 어렵다고 판정된 종류의 서적을 출판하는데 사용되었다. 당초 250종을 예상했었으나, 보조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644종이 간행되었으며, 1962년에 다시 3년이 연장되어 546종이 추가되었다. 한편 11개의 중간규모의 출판부에 40만6천달러가 지급되어 보다 평범위한 용도 즉 자원의 증가, 판매능력의 향상, 기타 출판부의 특수한 개별적 목적을 사용되었다.

(C.R. Hawes, *To Advance Knowledge; A Handbook on American University Publish.*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적 교육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학교당국의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나 당국의 협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⁵¹⁾

두번째로 출판량의 급증은 정보원으로서의 저자들에게 출판기회와 출구의 협소화라는 심각한 문제와 출판부 욕에서의 원고 선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케 하고 있다. 전문인으로서의 승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출판업적에 대한 압력때문에 학술정보의 양적 팽창은 불가피하며, 한편으로 이 모든 연구결과가 다 똑같이 높은 수준의 질과 독창적인 공헌을 할수있는 연구라 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원고 심사제도가 필요하게 되고, 출판될수 있는 원고는 극히 소수로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되지 못하는 원고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량이 방대해지면 그만큼 적합한 자료의 소재확인 방법이나, 자료 접근 방법이 난해해지고, 최신성을 띠는, 포괄적인 서지봉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보활용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이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⁵²⁾

세번째로 사회변천에 기인한 정보요구의 패턴이 변화하여 정보수명이 단축되고, 따라서 최신정보의 가치가 커감에 따라 전통적인 출판과정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그 시간성에 있어서 점차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속성과 정확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진보하여 이미 워드—프로세싱(Word-Processing)이나, 컴퓨터 출판(Computer Publishing),⁽⁵³⁾ 또 컴퓨터에 의한 서지적 정보망의 개발등이 전통적출판기술에 도전해오고 있다. 문제는 대학출판부가, 어디까지나, 심리적 미학적 정신적 차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출판기술이나 정보축적매체에 대처될 수 없는 전통적 출판과정을 통한 학술서적을 존속시킴에 있어 어떠한 태도와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데 있다 하겠다.

(51) 鄭忠良, "韓國大學出版의 現實", 出版文化, 105, (1974, June), p.15.

(52)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上掲書, p.12.

(53) Terrant, Seldon W., "Computers in Publishing," i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15, ed.by Martha E. Williams, New York: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Inc., 1980, pp. 191-219.

V.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의 대학출판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국의 「國家研究 팀」(The National Enquiry)이 결성되어 1976년에 공식적인 출항을 보았고 1978년에 그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1979년에 존·홉킨즈 대학 출판부에 의하여 책자로 출판되었는데, 연구결과인 대학출판부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권장사항들은 모두 의미 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권장사항들과, 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방안들을 두루 종합분석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각각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출판부의 최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재정사정의 완화와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가능한 노력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가지 대안(對案)이나 대책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1) 재단역할을 확장하는 일 : 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반의 향상과, 출판부끼리의 협동을 장려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재단이 후원한 연구결과외 출판에 대한 서명권리보조금(書名權利補助金)(Title Subsidies)의 제공, 등을 통하여 재단은 학술정보 생산과 배포에 대한 역할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대학출판부끼리의 출판업무를 위한 공동협력 : 즉 출판물 처리절차에 있어 창고보관(Warehousing)이나 운송(Shipping)등의 경영을 공동협력 체제 하에 이행함으로써 출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4>는⁽⁵⁵⁾ 41개의 공사립대학 출판 운영자들에게 대학출판업무들의 중요도에 의견을 타진하여 얻은 결과를 표시하고 있다.

(54)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26.

(55) Corson, John J., 前掲書, p.3.

〈표 4〉 What press operations are critical and should be retained by the press in order to fulfil its mission, and which could be relinquished to outside contractors(or consortia of presses) for economy without impairing its role?

press operations	public universities			private universities			total(41) ¹		
	criti- cal	could be rel- in-qui- shed	unce- rtain	criti- cal	could be rel- in-qui- shed	unce- rtain	criti- cal	could be rel- in-qui- shed	unce- rtain
• acquisition	26	—	—	15	—	—	41	—	—
• selection and review	26	—	—	15	—	—	41	—	—
• editing	21	4	1	13	2	—	34	6	1
• composition and design	16 ²	10	—	9	4	2	25	14	2
• promotion	13	5	8	7	5	1	20	10	9
• printing	6 ³	18	1	5	7	—	11	25	1
• warehousing and inventory	5	16	5	4	7	1	9	23	6
• fulfilment and billing	5	16	5	4	7	1	9	23	6
• field selling	4	19	4	4	9	—	8	23	4
• international sales and promotion	2	22	2	5	7	1	7	29	3

- 1/ Respondents comprised 26 of 31 public universities and 15 of 21 private universities. Where responses do not add to the total in each category, data on this operation were not supplied.
- 2/ Two uniuersities distinguished between composition and design, expressing view that composition could be relinquished but that design was critical.
- 3/ In two states all pinting was done by State Printer.

이 결과에 명시된 사실은, 대학출판부의 업무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확보와 선택, 그 다음 편집과 구성과 디자인이며, 반드시 그 대학출판부의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업무내용으로는 국제적인 판매나 선전, 그리고 현지판매(field selling), 그리고 창고보관이나 재고확인 등의 순서가 되고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자기 출판부에서 반드시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창고보관이나, 운송같은 업무는, 이미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출판부들 활용하고 해당 봉사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이미 확립된 출판부로부터 봉사를 제공받기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일이긴 하나 몇개의 소규모출판

부끼리의 조합(consortium)을 형성함으로써 중복되는 시설 및 인력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출판부가 없는 대학이 출판부가 있는 대학에의 참여 : 즉, 출판부가 없는 대학은 학술서적 출판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一環)으로 출판부가 있는 대학의 출판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정 액수의 시명 권리 보조금을 해마다 특정의 선정대학출판부에 제공하고 좀처럼 출판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학술서적의 출판 출구를 열어 줌으로서 저작자의 의욕을 고무하고, 동시에 출판부의 경제적 여건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⁵⁶⁾

(4) 판매부수의 확장을 위한 시장개척에의 노력 : 즉 학술서적의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책의 내용에서부터 광고, 창고보관, 운송 등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며, 특히 하드바운드(hard-bound)와 종이표지(paper back) 판(版)을 동시에 출판하는 이중(二重)시스템(dual system)을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⁵⁷⁾는 1977년에 AAUP의 회원 출판부가 출판한 하드·바운드와 종이표지의 서적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7권의 하드·바운드서적 대(對) 1권의 종이 표지서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종이표지로만 출판되는 책 수와, 두 가지 경우의 동시 출판서적의 수는 거의 같은 숫자임을 알수 있다. 학술서적의 최대의 유통채널이라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이, 수명이 길고 장정이 아름다운 클로드 제본관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향에 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학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서적은 학생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종이표지서적을 출판하는, 이중판의 제도도입은 예외로서가 아니고 출판의 일상적 관례로 생각하여 출판부측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번째로, 학술정보량의 폭발적인 증대도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하

(56)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ess, 前掲書, p.25.

(57) Ibid. p.116.

〈표 5〉 Classification of Editions Published by Members of the AAUP, 1977

Edition	American presses (64)	Other presses(10)	All presses (74)
New titles	2,255	1,396	3,651
Cloth only	1,654	1,294	3,239
Paper only	291		
Paper and cloth	310	102	412
Revised editions	83	20	103
Cloth only	36	6	42
Paper only	33	5	38
Cloth and paper	14	9	23
Paper editions of earlier cloth titles	209	36	245
Total titles	2,547	1,452	3,999

여 다음과 같은 방법의 적용이 제외, 토의, 시련되고 있다 하겠다.

(1) 투·웨이(two-way) 혹은 두 단계 시스템(two-level system)⁽⁵⁸⁾의 적용 : 즉, 투·트랙시스템(two-track system)⁽⁵⁹⁾ 기록시스템(Recording System)⁽⁶⁰⁾ 지칭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가장 가치가 큰 작품은 전통적인 출판 방법에 의하여 계속 출판, 판매하되, 출판할만한 가치는 적지만, 때때로 유용될 수 있는 원고는 기계적 방법으로 기록(record), 보존(preserve)하고 있다가 요구가 있을 때 접근을 제공하게 되는 소위“on-demand(OD)”⁽⁶¹⁾시스템을 병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록시스템’이 출판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비출판물의 국가적인 보완책으로서 도서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위한 자료로 간주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Publishing)과 ‘기록’(Recording)의 차이점을 구분해 본다면, 철저한 원고심사를 거쳐 철저한 시장개척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출판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전자(前者)에 속할 것이

(58) Frugè, August, "Beyond Publishing: A System of Scholarly Writing and Reading (2)," *Publishers' Weekly*, 5, (1977, December), p.25.

(59) Ibid.

(60) Frugè, August, 上揭論文, p.25.

(61) Ibid.

며, 때때로 유용될 수 있는 원고들을 중앙집중식 서지적 봉사들 통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증식에 의한 정보폭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후자(後者)에 속한다 하겠다.⁽⁶²⁾

물론 공식적이 아닌 '기록시스템'에 보존된 원고가 진급사정기준에 포함이 되고 교수들의 연구실적평가에 우, 열(優劣)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이 시스템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2) 서지봉사의 합리적 운영과 개발 : 즉 학술정보생산의 증대에 대처하기 한 가지 방안은, 출판된 자료나, 기체에 축적된 자료의 인식과 접근을 위한 서지봉사의 합리적 운영과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CHOICE」는 대학출판서적의 85~90%를 리뷰하고 있어⁽⁶⁴⁾, 자료의 소재확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리뷰까지 접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 뿐만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봉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는 중, The National Enquiry는 「국가서지시스템(A National Bibliographic System)」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⁶⁵⁾ 이는 서지출판에 종사하고 있는 각 연구도서관과, 각 학술단체와 조직들이 국회도서관(L.C)에 공동 가담하여 서로 연결성 있는 국가적인 수준의 서지시스템을 창설함으로써 학술서적의 서지통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기록시스템'의 경우에는 특히 컴퓨터 시스템에 근거하여 기록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색인 개발, 등의 서지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 세번째로, 대학출판부는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대하여 The National Enquiry는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기술적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학회 위원회(ACLS)와 AAUP와 연구도서관협회(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ans)와, 학회와, 출판자와,

(62) Ibid.

(63) The John Hopkins Univrsity Press, 前掲書, p.105.

(64) Gardner, Richard K., 前掲書, p.66.

사서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⁶⁵⁾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싱이나 컴퓨터에 의한 출판 등이, 학술정보의 출판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어떤 의의(意義)와 잠재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기술들의 활용은 기록정보의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토의, 연구함으로써, 학술도서나 학술잡지의 출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고, 동시에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ERIC (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는 리코딩 시스템과 부분출판(partial 혹은 practional publication)을 제공하고 있고,⁽⁶⁶⁾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은 1970년대 중반에 고도의 성능을 갖춘 Xerographic Printer가 개발되자, 이것을 작은 offset presses와 연결하여 독창적인 On-Demand(OD) Publishing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⁶⁷⁾

최신성의 정보 생산과, 정보폭발의 통제, 등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여 적절하게 적용,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Ⅶ.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1) 대학의 신념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과 배포를 진작시켜야 하는 임무에 깃들어 있어야 하며, 대학출판부는 대학의 이러한 신념을 구현(具現)해야 할 것이다.

(2) 적시성(適時性)과 간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서적이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합당한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라 할 수 없지만, 서적은 특정주제

(65)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前掲書, p.16.

(66) Ibid. p.29.

(66) Frugè, August, 前掲論文, pp.309—310.

(67) Ibid, p.306.

와 특정독자에게는 가장 우수한 매체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3) 인간 사회가, 자원이 필요할 때 그것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비록 보조금에 의존하여서라도 필요로하는 사람을 위하여, 국가자원으로서의 학술서적은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4) 현대는 경제적 내지 기술적 영향을 피할 수 없지만 또한 인간사회는 전통에 면역되어서도 안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출판부가 존속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 당면 문제인 재정문제, 학술정보복발문제, 새로운 기술의 도전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재단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나. 대학출판부끼리 출판업무의 공동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 출판부가 없는 대학은 교수들의 원고출판을 위하여 출판부가 있는 대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 관예부수의 확장을 위하여 이중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마. '리코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학술서적의 통정을 위한 서지봉사의 합리적 운영과 개발이 필요하다.

사.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술적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각 정보산업의 하부구조로 구성된 상임연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代身함〕

The University Press as a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Lee Young-Ja

(Abstract)

The publication of the result of scholarly research is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by which learning is advanced. The university presses, as one of the major scholarly publishers are now confronted with many critical problems, such as the declining unit sales, the explosion of manuscripts, the challenge of new publishing technologies, etc., in performing the role of the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imposed on the university presses and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m.

For the study, the related literature to the subject were read, analyzed and synthesized, from which the overall prospect of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strategies are derived.

The conclusion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aith of the university should lie in its role to advance scholarly learning through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high-quality knowledge, and the university press should materialize such a faith.

(2) The scholarly books, though not the best media of scholarly communication taking a side view of its timeliness and brevity, can perform the function of the best media for the specific subject and readers.

(3) The scholarly books as national resource must be published for

the scholars demanding them even though the publication can't help depending on the subsidiary fund.

(4) For the survival and activation of the university presses, the following strategies should be examined, and put in force if necessary.

(a) The role of the foundation supporting the university presses should be expanded

(b)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operations of the presses should be established.

(c) It is desirable that the university without the press should participate in the university with the press for both the financial supporting and the publisizing its faculty's manuscripts.

(d) The positive efforts should be made for the increase of sales copies by implementing the dual-system of publication.

(e) It is desirable that 'recording system'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traditional publication system both for the lightening of financial problems and the explosion of publications.

(f) It is necessary that the effective methods of the bibliographical control should be develep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holarly communicetoon.

(g) Any kind of the permanent organization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from all the infra-structures of informa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to study the character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to discern the better choice of specitic technologices in the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附 錄

韓國圖書館·情報學會 會則

第一章 總 則

- 第1條 (名稱) 本學會는 韓國圖書館·情報學會라 稱한다.
- 第2條 (目的) 本學會는 圖書館 및 情報學研究를 通하여 學問의 發展에 貢獻하며 會員 相互間의 有機的인 協力圖謀를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所在地) 本學會의 本部는 大邱市內에 둔다.
- 第4條 (事業) 本學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1. 研究發表會 및 講演會
 2. 學會誌, 研究論文集 및 學術資料 刊行
 3. 其他 學會가 必要로 하는 事業

第二章 會 員

- 第5條 (會員의 種類 및 資格) 本學會의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으로 하고 그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圖書館 및 情報學을 研究하며 本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로서 會員 2人 以上の 推薦을 거쳐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2. 準會員은 圖書館 및 情報學을 研究하는 學生으로서 會員 1人 以上の 推薦을 거쳐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3. 名譽會員은 本學會의 發展에 寄與한 個人 또는 團體로서 任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第6條 (會員의 權利 義務)
1. 正會員은 本學會 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決議權과 任員의 選舉權, 被選舉權을 가지며 會費負擔과 會則遵守의 義務를 진다.
 2. 準會員은 本學會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各種會議에 參席하여 發

言할 수 있으며, 會費負擔과 會則遵守의 義務를 진다.

3. 名譽會員은 本學會 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發言할 權利를 가진다.
4. 會費를 1年以上 滯納하는 者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다만 滯納會費를 納入함으로써 資格을 回復할 수 있다.

第三章 任 員

第7條 (任員과 任期)

1. 本學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① 會 長 1人
 - ② 常務理事 1人
 - ③ 理 事 6人
 - ④ 監 事 2人
 - ⑤ 참 記 1人
2.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3. 任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는 會長이 이를 委囑하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8條 (任員의 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참記는 會長이 指名한다.

第9條 (任員의 職務)

1. 會長은 本學會를 代表하여 事務를 統轄하며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2. 常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하며 本學會의 諸般事務를 管掌한다.
3. 理事는 本學會의 研究活動과 財政 等 重要事業은 물론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을 審議하고 本學會의 設立目的을 効果의으로 成就할 수 있도록 會長을 積極 補佐한다.

4. 監事는 本學會의 財政 關係 業務遂行에 관한 事項을 監事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5. 書記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本會의 諸般業務를 遂行한다.

第四章 會 議

第10條 (總會의 種類와 召集)

1. 本學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 또는 會員 1/3以上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1個月 以內에 이를 召集한다.
3. 總會의 議事는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서 決議하고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1條 (總會의 決議事項)

1. 會則의 制定과 改定
2. 任員의 選出
3. 決算事項
4. 其他 主要事項

第12條 (任員會)

1. 任員會는 本學會의 會務 및 事業計劃을 審議, 決定한다.
2. 任員會는 新入會員을 認准한다.
3.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任員의 1/2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3條 (論文審査委員會) 研究論文誌에 掲載될 論文의 學術性을 위하여 論文審査委員會를 두며 委員은 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한다.

第14條 (運營) 本學會의 運營은 會費 및 其他收益金으로 한다.

第15條 (豫算) 本學會의 豫算은 任員會에서 審議하되 總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

第16條 (會計年度)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第五章 附 則

第17條 (會則變更) 會則 總會出席會員의 2/3以上の 贊成으로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 (會則의 施行) 本會則은 總會의 認准을 얻은 날로부터 그 効力을 갖는다.

(制定 : 1974. 4. 20.)
(改正 : 1978. 11. 25.)
1981. 2. 20.)